

## 조합원의 공제업무 편익 증진 노력, 대구·경북지점



조합원사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함 안내와 응대에 최선을 다하는 대구·경북지점

대구·경북지점은 주요 관공서가 자리잡고 있고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하여 조합원사의 접근성이 우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해 있다.

우리조합은 대구와 경북에 375개 조합원(29,755좌수)의 대구지점과 161개 조합원(15,029좌수)의 포항영업소, 139개 조합원(11,560좌수)의 구미영업소로 구성된 대구·경북지점을 개설하고 조합원

의 보증 및 공제업무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 대구·경북지점에는 5명의 대구지점 직원과 영업소(포항, 구미) 직원 3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675개의 조합원사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특히 대구지점은 지난 2012년 5월 현재의 수성구의 건설회관 6층으로 이전하면서 쾌적하고 수준

높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, 대한설비건설 협회 대구시회와 한 층에 마주하고 있어 조합과 협회 업무의 유기적 관계는 물론 조합원사 및 협회 회원사의 윈스톱 서비스를 도모하고 있다.

대구·경북지점의 직원들은 항상 고객의 눈높이에서 친절안내와 응대로 조합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, 매월 1회의 지점 내부직원에게 대한 직무 및 친절교육을 통해 직무능력과 서비스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다.

더욱이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발주자(대구시청, 교육청 등) 및 보증채권자(경일건설 주식회사, 주식회사 서한, 화성산업 주식회사 등)를 수시로 접촉하면서 조합원을 대신하여 하수급업체의 어려움을 호소함으로써 설비업계의 어려움이나 민원을

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, 항상 조합원들의 요청사항을 경청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조합원사 편익 증대 및 조합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.

지점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석기 지점장은 “변화의 시대에 맞는 지점운영의 트렌드는 고객과의 소통과 고객만족이다”면서 “지점을 방문하는 모든 조합원사가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갈 것이며, 언제나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”고 강조했다. 또한, 2015년에도 대구·경북지점이 조합원사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. 



[대구·경북지점 직원]  
왼쪽부터 손인성부 지점장, 이석기 지점장, 김현정 대리, 진재옥 대리, 박대근 과장

조합은 항상 조합원을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조합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·경북지점 및 해당 영업소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  
연락처 : 대구·경북지점(053-563-4670), 포항영업소(054-275-9764), 구미영업소(054-458-8277)